

“지역민 목소리·삶 담아내는 역할 지속하길”

광주매일신문 23년 애독자 김명규 ㈜어등기업 대표

2002년 접한 이후 현재까지 구독
밀도있는 소식·검증 보도 등 신뢰
고향 진도 등 전남 기사 눈여겨봐
“앞으로도 ‘정론직필’ 길 걸어가길”

“3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함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과 호흡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삶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신문으로 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23년째 광주매일신문을 구독해온 장기 애독자 김명규(60·사진) ㈜어등기업 대표는 본보 창사 34주년을 맞아 10일 축하와 함께 따뜻한 바람을 전했다.

김대표가 광주매일신문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2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이다. 당시 지역 동향을 파악해야 했던 업무 특성상 여러 신문을 살펴보다 광주매일신문을 접하게 됐고 이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김대표가 종이 신문, 그 중

에서도 광주매일신문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역의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요즘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군 단위, 동네 단위의 소소한 소식은 포털이나 유튜브에서는 접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지역의 자세한 소식을 전하는 지역의 삶과 가장 가까운 매체”라며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독자를 위해 수차례의 검증을 거쳐 정보를 전달하는 점 역시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진도 출신인 김대표는 평소 전남 동·서부권(10·11면) 소식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주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오피니언(9면)도 즐겨 읽는다.

그는 “자주 고향을 방문할 수 없다 보니 전남 지역 소식을 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전하는 기고문과 칼럼은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라고 말했다.

최근 기억에 남는 기사는 지난 4월4일에 발행된 ‘윤석열 파면 호의’를 꼽았다. 그는 “추운 겨울 많은 시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날의 소식을 신속히 전달한 호의



23년째 광주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김명규 ㈜어등기업 대표가 본보 창사 34주년을 맞아 10일 축하와 함께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와 삶을 담아내는 신문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는 의미가 컸고, 지금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신문 읽는 습관을 강조하며 “정보는 곧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을 꾸준히 읽다 보면 지역사회를 보는 감각도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다.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맞아 그는 “앞으로 더 지역 깊숙이 들어가 군 단위, 동 단위의 생활 정보를 보도해줄 바란다”며 “사람들이 지역 신문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뉴스보다는 지

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 위함이다. 같은 광주에 살지만 광산구 주민이 동구나 남구 소식을 잘 모르는 만큼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명규 대표는 “광주매일신문이 앞으로 지역의 ‘공기 같은 언론’으로 정론직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바란다”며 “광주를 알고 싶다면 광주매일신문을 보라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광주매일신문의 창사 34주년을 축하했다. /주성학기자



광주유니언글로벌센터 ‘다가치 페스타’ 성료

광주유니언글로벌센터는 지난 8일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다문화 교류를 위한 ‘다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인들과 외국인 유학생, 광주시민 등 200여명이 모여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축사, 세계문화공연, 밴드공연, 강연, 유니폼 증정식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문화공연에서는 중국 ‘섬세홍자’, 남태평양 ‘Pate Pate’, 중남미 ‘La Ola’, 미국 ‘To the sky’ 등의 무대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소통·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중기자

강연에서 김진성 광주유니언글로벌센터 대표고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레드우드 나무 사례를 통해 “나라와 언어가 다르지만, 함께 교류한다는 건 좋은 것이다. 다문화 여러분들이 축구로 우리의 연결돼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은 “다가치 페스타는 다문화인들의 니즈를 파악해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있다.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더 좋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박희중기자



전남도, 민·관 합동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남도는 10일 영산강 하구둑 삼거리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캠페인에는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 왕삼동 대한조선 대표이사, 유인숙 전남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김창수 전남조선해양기자협회장, 대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산강 하구둑 삼거리 교차로에서 안

전 결의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안전캠페인 피켓 활동 등을 통해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자율 안전관리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또한 작업현장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소영호 전남도 전라산업국장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AI·로봇·IoT·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AI 자율제조 시스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강문성·진호건 도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응원 챌린지’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사진 원쪽)은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난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사진 오른쪽)도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호건 의원은 “곡성처럼 내륙 지역에서도 섬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미래 세대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 박람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정·여수=김진선기자

영광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영광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최근 2025년 상반기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카데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협의회는 청소년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방향성과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기관과의 연계 활동, 청



소년 생활 및 참여 관리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사업과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군-곡성군, 3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 행정국 행정과는 “최근 곡성군 행정과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3년 연속 상호 기부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혜경 담양군 인문학교육팀장과 곡성군 행정과장의 인연으로 2023년 처음 시작됐으며, 양 기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올해까지 기부 릴레이를 실천했다.

양 지자체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행정 교류와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조용삼 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도 살리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건전한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취임



노은준(사진) 무안농협 조합장이 농협유통 이사로 취임했다.

10일 무안농협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전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다.

전국 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로컬푸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노 조합장은 무안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장 중심의 경험과 실천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아 농협유통 이사로 선임됐다.

노은준 조합장은 “농협유통 이사로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유통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농협은 조합장의 이번 선임에 계기로 무안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확대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안=김상호기자

문영길 목포 ‘카페 석산’ 대표 저소득 노인세대 컵라면 기부



목포시는 10일 ‘전남 목포 소재 대형 이색 카페 ‘석산’에서 컵라면 100박스를 축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카페 석산(대표 문영길·사진)은 약 3천평(9천917㎡) 규모와 탁 트인 오션뷰를 갖춘 목포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컵라면 100박스는 축교동 내 저소득층 노인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영길 카페 석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축교동장은 “이웃사랑을 전한 카페 석산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기탁된 컵라면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개발공사-함평교육지원청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대’ 협약

전남개발공사와 함평교육지원청은 10일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맞춰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전체 초등학생 약 700명 중 22.6%가 이주배경 학생으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협약을 통해 함평교육지원청 산하 11개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도서관에 접속해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와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포함한 폭넓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전자도서관 개설 이후 신안·완도 등 도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현재 전자도서관은 약 1천700권의 회원과 2천 100권의 전자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주요 조사를 기반으로 500권 이상의 신규 도서를 도입하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희망”이라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